

살아있는 교회! 전도하는 목장!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5월 목장 성경공부 개요

*봄목장축제 기간이 있는 5월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각 목장에서 증인으로서의 삶과 전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높여 생활전도에 적용한다.

1주차	5월 3일	전도주간 *목장축제를 홍보함	18.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2주차	5월 10일	전도주간 *목장축제를 홍보함	19. 담대한 확신으로 행하는 전도
3주차	5월 17일	전도주간 *교회로 초대함	20.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하는 전도
4주차	5월 24일	오이코스 목장축제 *초청주일(이광기 탤런트) *교회로 초대함	21.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
5주차	5월 31일	오이코스 목장축제 *환영주일 *목장 모임에 초대함	22.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18.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마음 열기 오이코스 목장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은 계속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전도는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늘나라에 가면 못합니다. 바로 지금, 나의 이웃에게 해야 합니다."

1. 율법사의 질문 -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눅 10: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그 사람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즉, 이웃의 범위를 알아야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2.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1)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 및 그 이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을 발견한 제사장과 두 번째로 발견한 레위인은 각각 이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눅 10:31 마침 한 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눅 10:32 또 이와 같이 한 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처럼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고 피해간 것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같은 동족이나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에 국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에게 원수가 된 사람은 동포라도 이웃의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준수에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 귀족인 제사장들은 평범한 신앙생활을 하는 백성이나 영향력 없는 천민들을 이웃에서 제외시키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에 대해 별다른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2) 사마리아인의 반응 및 그 이유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스럽게 도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종과 감정을 초월하여 돕고 있습니다.

눅 10:33-34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 예수님의 질문 -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는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눅 10: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 □□

율법사의 질문인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와 예수님의 질문인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 5:43-44 또 네 이웃을 □□ 하고 네 원수를 □□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민족적, 종교적, 감정적 선입관을 버리고 모두 이웃으로 받아들여 최선을 다해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4. 이웃 범위의 확장

“지금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의 질문에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유대 종교인들처럼 이웃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일치됩니다.

(1) 예수님의 이웃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독점하려는 무리들 속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다른 동네로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눅 4:42-43 날이 밝으매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 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양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 10: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2) 바울의 이웃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을 사랑했지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방인의 외침에 마음이 열려있었습니다.

행 16:9-10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더 나아가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5. 이웃을 확장시키는 성령님

인간은 한 영혼도 따듯이 품을 수 없고, 한 생명도 영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초대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넓은 이웃의 범위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어지게 되고, 땅 끝까지 이웃으로 품을 수 있는 따듯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행 1:8 오직 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6. 이웃사랑과 복음전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중에는 복음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내버려 두는 것이 이웃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족한 영혼이 많기 때문입니다.

비신자들 가운데는 신자나 교회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실족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눅 17:1-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땃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실족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눅 19:10). 그러므로 실족한 자를 위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당연한 신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고후 11:29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2) 혼미한 영혼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영혼을 혼미케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후 4: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많은 비신자들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그들의 귀가 가려져 있으며 판단력이 혼미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복음을 듣지도 못한 영혼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대속해 주셨으며, 성령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진리를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롬 10:13-14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 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웃 사랑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지혜로워야합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이웃 사랑의 핵심입니다.

적용과 나눔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1. 율법사의 질문 -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2.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 (1)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 및 그 이유
 - (2) 사마리아인의 반응 및 그 이유
3. 예수님의 질문 -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는가?
4. 이웃 범위의 확장
 - (1) 예수님의 이웃
 - (2) 바울의 이웃
5. 이웃을 확장시키는 성령님
6. 이웃사랑과 복음전도
 - (1) 실족한 영혼이 많기 때문
 - (2) 흥미한 영혼이 많기 때문
 - (3) 복음을 듣지도 못한 영혼이 많기 때문
 - 지금 내가 이웃이 되어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가 도울 수 있고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예비 전도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실천 과제 오이코스 목장 축제 기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나 목표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먼저 주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한 후에 아래의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신 아버지여, 내 눈을 열어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을 볼 수 있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 나를 부르고 있는 영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소서.”

분류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명단
가족이나 친지	
동네 이웃	
친구나 동창	
직장	
취미 관련 이웃	
자녀 관련 이웃	

19. 담대한 확신으로 행하는 전도

마음 열기 아프리카에는 전 국민의 50%이상이 에이즈에 감염된 나라도 있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은 삶을 포기하거나 민간요법이나 주술에 의지하여 병을 고치려고 애쓰다가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에이즈를 100%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이 약을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접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길을 거부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폭리를 취한다면 당연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라는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약을 아프리카 현지에서 저렴하게 생산하여 그 약을 들고 환자들을 찾아가 미신적인 다른 요법들을 끊고 이 약을 복용하라고 확신을 가지고 권면한다면, 이것은 독선적인 행동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 복음의 유일성과 능력에 대한 확신

(1)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유일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이요 ☐☐요 ☐☐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행 4:12 다른 이로써는 ☐☐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3) 전도자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온 인류를 살리는 하나님의 확실한 능력입니다.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2. 전도자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확신

(1) 전도자는 전도를 사명으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복음전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고전 9:16-17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받았노라

행 20: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 전도자는 자신이 한 영혼의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는 사람으로 전도자는 한 영혼에게 생명과 사망,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는 존재입니다.

고후 2:15-16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으로부터 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으로부터 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 하리요

3. 전도자의 책임과 보호

(1) 전도는 신자가 반드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겔 3:17-19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 값을 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을 보존하리라

(2) 전도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그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딤후 4:17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의 입에서

전집을 받았느니라

(3) 전도자는 복음 전도가 세상의 종말을 불러오는 역할과 참된 질서가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게 하는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 24:14 이 천국 복음이 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 되리니 그제야 이 오리라

4. 전도의 가치와 기쁨에 대한 확신

(1) 전도자는 복음 전파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가치 있는 일임을 아는 사람이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서는 회개할 것 없는 아흔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2) 전도자는 영혼구원이 자신에게도 큰 기쁨을 주는 일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에 없다.”

– 윌리엄 버클레이

요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으로 충만하였노라

전도 현장 나눔

활동시간:

전도자:

1. 전도 대상자의 이름, 전도 장소, 연락처, 기도제목을 기록합니다.

2. 전도 현장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0. 온 교회가 기도로 함께하는 전도

마음 열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리차드 가조스키 목사는 “40일 예배당 금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성도들을 만나지 말고, 기독교 방송도 듣지 말고, 기독교 서적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믿지 않는 이웃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매주 지역을 정해 집집마다 대문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인 스티커를 붙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40일째가 되는 날, 이 교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261,900호나 되는 집에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결과의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8,600명이 기도를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만 권의 성경책이 배포되었으며, 4,600명이 복음에 대해 질문을 했고, 15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 가조스키 목사는 교회가 진취적으로 전도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 교회와 복음전도

(1)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대행자로서 교회를 지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2) 교회는 복음 전도의 본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벤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3) 영혼 구원은 교회의 필수적인 것이지 선택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친구들”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 9:2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2. 적극적, 열정적, 협력적인 초대교회의 전도

(1) 초대 교회는 마지못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으로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행 4:19-20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 초대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행 5:41-42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를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3) 초대 교회는 땅 끝의 영혼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 하는 교회였습니다.

롬 15:23-24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귄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3. 교회의 전도와 기도

(1) 복음전도를 위해 온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후 1: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2) 성도의 합심기도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 16:19 내가 □□□□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3) 기도가 없는 전도는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막 9:29 이르시되 □□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4) 이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를 동일시하며 하나로 통합시키셨습니다. 기

도는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전도입니다.

요 14:13-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요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

4. 강청하는 기도와 지경의 확장

(1) 영혼구원을 위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린 영혼들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럼으로 부자 친구를 둔 가난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눅 11:5-8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꾸어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 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2) 영혼을 위해 강청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사 54:2-3 네 □□□를 넓히며 네 처소의 □□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로 퍼지며 네 자손은 □□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 임이라

전도 현장 나눔

활동시간:

전도자:

1. 전도 대상자의 이름, 전도 장소, 연락처, 기도제목을 기록합니다.

2. 전도 현장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1.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

마음 열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에 순종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종교가 참된 종교입니다. 생명을 바칠 가치가 없다면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상당한 손해와 배척, 심지어 죽음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런 자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 하나는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사 9:6)인데 그 뜻은 “용맹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도 용맹스러운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단 11:32)

1. 현장에 나가는 전도자와 예비된 영혼

(1) 초대 교회는 집이 아닌 길거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행 2: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2) 전도 현장에는 반드시 ☐☐☐ 심령이 있습니다.

마 4:18-19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3) 한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현장으로 찾아가는 ☐☐☐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전도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롬 10:14-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4)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전도 현장에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막 16:15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 현장에 약속된 □□과 보상

(1) 우리가 순종함으로 전도 현장에 발을 내디딜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수 3:13 온 땅의 주 여호와와 그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2) 하나님은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과 두루 다니는 곳을 우리의 유업으로 주십니다.

수 1: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창 13: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3) 전도 현장에서는 핍박이나 냉대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 중 하나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3. 예수님의 현장 전도

(1) 예수님의 전도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 중심의 전도였습니다.

요 4: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2) 예수님은 □□□ 심령을 찾아내셨습니다.

요 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3) 예수님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영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을 찾아내셨습니다.

요 4:9-10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4) 예수님은 □□□□□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요 4:13-1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5) 예수님은 전도 대상자가 가진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 4: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6) 예수님은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지 않으시면서 동시에 전도대상자가 무안하지 않도록 □□ 하셨습니다.

요 4:16-18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7) 예수님은 전도와 동시에 □□□□□을 통해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요 4:23-24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8)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전도를 마치셨습니다.

요 4:25-26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야 곧 □□□□□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전도 현장 나눔

활동시간:

전도자:

1. 전도 대상자의 이름, 전도 장소, 연락처, 기도제목을 기록합니다.

2. 전도 현장에서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22.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

마음 열기 모든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주어진 문장을 완성하여 자신의 하루 일과를 설명해 봅시다.

1. 나는 보통 ()에 일어납니다.
2. 아침 식사로는 대개 ()을 먹습니다.
3. 쉬기 위해 보통 내가 하는 일은 ()입니다.
4. 저녁을 먹고 나서 가장 즐겨 하는 일은 ()입니다.
5. 잠이 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입니다.

1. 구원의 확신

(1)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나 당신은 이런 의심이 생길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내가 원가를 잘못하면 나의 구원은 취소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신의 마음은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엡 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이유를 당신의 행위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덕을 부리는 느낌이나 감정, 기분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분명히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생각한다면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에 대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롬 11:29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당신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밝게 웃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당신의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죄의 확신

(1) 신자와 범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때때로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당신을 찾아와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봐라, 너 또 죄를 지었지? 그러고도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같은 참소 앞에서 당신이 가졌던 구원의 확신은 맥없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 1:8 만일 우리가 ☐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일 1: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 이후에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고 자랑하는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이단입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못함으로 영적인 잠에 빠져버릴 때,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할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리지 않을 때에는 얼마든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범죄는 결코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범죄 한 신자가 주님과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자백”입니다.

(2) 자백과 거룩의 회복

자백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에 대해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분명하게 결단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백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더러움에서 당신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위한 회개는 일평생 단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자백은 외출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씻는 것처럼 수시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우리의 자백에 대해 짜증스러워하시지 않고 도리어 가장 원하는 것을 받는 것처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 51: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경에는 자백한 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온전한 회복의 보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3) 즉각적인 자백의 중요성

하나님은 당신이 범죄한 순간이라도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죄를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자백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보다 온전한 자백을 위해 초대 교회 때 부터 계속되어 온 좋은 방법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 5: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적용과 나눔

-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내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1. 구원의 확신
 - (1)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 2. 사죄의 확신
 - (1) 신자와 범죄
 - (2) 자백과 교제의 회복
 - (3) 즉각적인 자백의 중요성
- 오늘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짝을 지어 서로를 축복하며 구원의 확신과 사죄의 확신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중보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23.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한, 에녹

본문: 창세기 5장 21-24절

21 에녹은 육십오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 그는 삼백육십오세를 살았더라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엔드루 보나르의 소설 속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매일매일 여행길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젠 우리 집으로 옮겨서 대화하자구나!’ 이 말씀을 마치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가서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산책을 했는데 즐겁게 이야기하다보니 집으로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너무나 멀리 오게 된 것을 깨닫자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왔으니 집으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천국으로 가자고 했다.”고 한다.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에녹은 참으로 신비로운 인물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성경은 이런 에녹에 대해서 아담의 족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에녹은 억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뻛고, 삶 자체였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도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내용 관찰 Observation

1. 에녹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으며, 그 중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때와 기간은 얼마인가(21-24절)?

보충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24절). 창세기 11장 10-26절에 수록된 족보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낳았다고 일관되게 언급하지만,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라고 일관되게 표현한다. 이는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은 상태에서 데려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가(21-22절)?

보충 에녹의 장자인 므두셀라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고대의 마을에는 입구에 창을 던지는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의 죽음은 곧 마을의 종말을 의미한다. 실제로 므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는 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므두셀라는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창 5:25),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고(창 5:28),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는데 그 때 므두셀라의 나이가 969세로 그의 마지막 시간과 홍수의 시간이 일치한다.

3.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24절)?
4. 에녹이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어떤 증거를 받았는가(히 11:5-6)?

보충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5-6)

5.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은 무엇인가(히 11:5-6)?

연구와 묵상 Insight

6.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무엇인가?

7.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것인가?

삶에 적용 Discernment

8. 현재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9.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나누어 보고, 혹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영역(가정, 직장,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닫으면서 존 워너메이커는 이런 글을 남겼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아하는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에 경보를 울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아는 자이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것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했다.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찬송가 94장의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없네.” 그 놀라운 사랑 잊을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다.

24. 담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한 여인, 라합

본문: 여호수아 2장 8-14절

8 또 그들이 높이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9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0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11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도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12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13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 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14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철강 왕으로 유명한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그가 아끼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 그 그림은 해변가에 물이 다 빠져 갯벌에 쓸쓸하게 남아 있는 배의 그림이었는데 방문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곤 했다. 그 이유는 카네기가 춥고 배고팠던 청년시절, 그림 속 나룻배 밑에 화가가 적어놓은 글을 읽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 “반드시 밀물이 밀려오리라.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카네기는 춥고 배고픈 역경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밀물”이 밀려올 그날을 믿으며 기다렸던 것이다.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희망은 언제든지 밀물처럼 찾아오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상황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많다. 그 중 라합은 이방여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믿음은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처한 현재의 상황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파도와 밀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자.

내용 관찰 Observation

1. 성경은 라합의 신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수 2:1, 히 11:31)?

보충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2:1) 라합의 집은 일종의 여관이나 숙박소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곳은 정탐꾼들이 머물면서 정보를 수집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을 것이고 라합은 기생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믿음(히 11:31)과 선한 행위(약 2:25)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2.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녀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9-11절)?

보충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2:9). 라합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호와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1:2). 라합의 고백은 특별히 신명기의 언어와 신학으로 가득하며 여호수아 1장 2절을 반영한다.

3. 라합은 정탐꾼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특별히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12-13절)?

4. 라합은 자신의 집으로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한 것은 무엇이었는가(15-24절)?

보충 “그의 집이 성벽에 있으므로”(2:15) 여리고 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발굴된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아마도 여리고 성은 두 개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성벽 사이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5. 기생 라합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가(마 1:5, 히 11:31, 약 2:25-26)?

연구와 묵상 Insight

6. 라합은 비천한 신분의 여성이었지만 믿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 그렇다면 그녀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7. 라합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여인이 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삶에 적용 Discernment

8. 믿음은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작은 일이지만 용기를 낸 경험이 있는지 나누어 보라!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9.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믿음에 대해 은혜로 채워주신 체험을 나누어 보라!(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시간을 갖는다.)

묵상 모임을 닫으면서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하면 미국의 알리바마주를 손꼽는다. 그 중에 소도시 엔터프라이즈라는 동네의 재판소 앞에는 이상한 비석으로 된 돌탑이 서 있는데 이 돌에는 “우리는 목화를 갈아먹었던 벌레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벌레는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주었고, 하면 된다는 신념을 주었다. 목화벌레들이여, 다시 한 번 그대들의 노고에 감사를 바친다.” 재미있는 글이지만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고 한다. 본래 이곳은 목화가 주요산업이었으나 1895년 난데없이 목화 벌레 떼의 극성으로 기근과 실직의 아픔을 맛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처절한 재앙에 도전하여 콩과 감자, 옥수수를 서둘러 재배하여 오늘 날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로 발돋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준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은 늘 변하고 바뀌게 되어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성경은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더 강조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은 그녀의 직업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상황과 믿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의 결정이다. 현재의 상황에 포기하거나 낙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가만히 앉아 있는 믿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하는 믿음이 될 것인가의 결과는 너무나 큰 것이다.

25. 하나님께 부르짖어 은혜를 입은, 한나

본문: 사무엘상 1장 9-20절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결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19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간구의 기도”라는 글이 있다. “저는 오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비록 무릎을 꿇고 있지만, 주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도 벅잡니다. 고독, 병, 슬픔, 그리고 고통. 때로는 제가 무너져 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때 한 작은 음성이 속삭인다. “네 자신을 잊고 미소를 지어라.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 올 때, 너에게 임했던 모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라.”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 “저는 주님께서 항상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매일 살아갈 힘을 주님께서는 약속하였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나의 피난처이시오니 나는 홀로 걸을 필요가 없나이다. 인생의 경주가 끝날 때 까지 제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도우소서.” 이 기도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기도이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는 것 밖에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불쌍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

내용 관찰 Observation

1.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다. 당시 한나의 고통은 무엇인가(삼상 1:1-8)?

2.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9-11절)?

보충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삼상 1:11) 이 표현은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여호와 앞에서 나실인으로 헌신하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수기 6장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여호와에게 구별하여 서원하는데 서약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3.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은 어떠했으며, 엘리 제사장에게 받았던 오해는 무엇인가(12-15절)?

4.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의 삶속에서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응답하고 있는가(18절)?

5. 한나는 기도의 응답으로 어떻게 아들을 낳게 되었으며,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사무엘의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20절)?

보충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삼상1:20)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가장 자연스러운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사무엘은 한나에게 자기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니고 있다. 또한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히브리어 발음과 비슷하다.

연구와 묵상 Insight

6.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과 그로 인해 당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한나의 마음과 자세를 묵상해 보자!

7.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삶에 적용 Discernment

8.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9. 한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닫으면서 1858년, 뉴욕의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절었고 시력도 극도로 나빴다. 게다가 천식까지 앓아서 앞에 있는 촛불을 끌힘조차 없는 호홉 곤란을 가지고 있었다.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열한 살이 되던 날,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그는 23세가 되던 해에 뉴욕 주를 대표하는 의원이 되었고, 28세에는 뉴욕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얼마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은 테오도르 루즈벨트이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사무엘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한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키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해야 한다. 모든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당신은 진정 복된 사람인 것이다.

26.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선택한 순교의 불꽃, 스테반

본문: 사도행전 6장 8-15절

8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새 10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11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혈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목장 모임을 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 나는 한 주 동안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자. 영국에 토마스 무어경이라는 믿음이 좋은 귀족이 있었다. 그런 그가 누군가의 무고한 중상모략을 받아 재판장에 서게 되었다. 그에게 내린 재판관의 판결은 사형이었다. 사형 언도를 들은 무어경은 항의하지 않고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재판관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친구여,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테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테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테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재판관은 충격을 받고 이렇게 물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하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합니까?” 토마스 무어경의 대답은 간단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의미가 다르다. 삶의 방식, 방향, 목적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본문에 등장하는 스테반을 통해 한 주 동안 살아갈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내용 관찰 Observation

1. 스테반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찾아보자(3, 5, 8, 10, 15절).

보충 스테반의 이름은 영어로 Stephen, Steve, Stephano로 그 뜻은 “면류관”이다.

2. 스테반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보자(9, 12절).

3. 위기의 상황에 처한 스테반의 모습과 대답은 무엇이었는가(15절, 행 7:2-53)?

4. 스테반의 대답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행 7:54, 57, 58)?

5. 죽음 앞에서 스테반이 주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행 7:59-60)?

연구와 묵상 Insight

6. 한 무리는 스테반을 집사로 세우고, 다른 무리들은 스테반을 핍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7. 스테반의 태도에 변함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8. 스테반을 바라보는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날을 어떻게 기억할지 나누어 보라(참조: 행 7:58, 행 22:20)!

삶에 적용 Discernment

8. 스테반의 환경과 나의 환경을 비교해 보고 스테반의 반응과 나의 반응의 차이점을 찾아보라!

9. 내 주위에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라!

목장 모임을 담으면서 구약을 믿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르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일반 유대인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켰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만, 복음의 불꽃은 더욱 퍼져갔다.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다. “폭군이 죽으면 그의 지배는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지배가 시작된다.” 폭군은 나를 위해 살고, 순교자는 복음을 위해 산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 나도 스테반처럼 복음을 위해 헌신하여 주님의 지배가 시작되는 한 주를 살아보자!